

후지보 - 새 3개년 계획 재검토로 이익 중요시한

섬유 사업 재편성

후지보 홀딩스는 2005년에 시작한 새 3개년 계획을 재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새로 검토하여 정할 “신중기경영계획”은 2007년도부터 다시 시작할 계획이며, 2007년초에는 경영의 방향성(方向性)을 밝힐 예정이다. 2006년도 하반기에 대하여는, 이미 단기(短期)의 수정(修正)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하고 있다.

2006년도 상반기에는 연마재(研磨材)가 좋은 성과를 보여 증수증익(增收増益)이 될 것으로 추정하는데, 기존의 섬유 분야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수정되는 계획에서는 평가(評價) 방법을 바꿔, 판매고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익을 중요시할 방침이라고 사장은 강조하고 있다. 호조를 보이고 있는 비의료(非衣料) 분야로 사람이나 자금을 돌려 성장을 빠르게 하면서, 불채산(不採算) 부문은 축소한다. 섬유 사업은 방적으로부터, 제직, 편성, 염색 가공까지 모든 것을 대상으로 사업을 다시 편성한다는 생각이다.

현재 비의료 비율은 전체의 40%를 약간 웃돌며, 기존의 섬유 사업은 60%를 좀 밑도는 정도로 돼있다. 연마재의 판매고는 2005년도에는 60억엔이었는데, 2006년도는 상반기만도 40억엔을 웃돌고 있으며, 수정 후의 새 3개년 계획에서는 세 자리 수의 억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직포 분야가 보이고 있는 것은 범용품(汎用品)에서 손을 떼고 연마성을 측정하는 장치를 개발하여 유저(user)의 니즈(needs)에 적합한 연마재를 생산할 수 있게 할 것이 도움이 되었다. ♣